

# 전북 산하기관장 중도사퇴 잇따라 ‘地選출마용 스펙 쌓기 자리’ 논란

이남호 원장 10개월 앞두고 퇴임  
최정호 사장 사퇴로 한때 공백  
심보균·최병관도 출마 후보  
행정 연속성 손상·조직 혼란 우려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벌써부터 물밑에서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계엄과 탄핵정국, 조기대선으로 이어진 숨가쁜 정치격변기가 지나자마자 중앙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 모드로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나 일선 지자체 등의 산하기관장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잇따른 출마설이 도마위에 올랐다.

물론 당사자들의 경력과 인맥 등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고 피선거권 보장이라는 취지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임기 10개월여를 남기고 9월 1일 퇴임했다.

이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도교육감 자리가 공석이어서 전북 교육에 난맥상이 있다”고 운을 뗐 뒤 “더 가까이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려고 한다”고 말해 사실상 교육감 선거출마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또 “전북연구원장직이 중요하지만 다른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소홀해질 수 있어 그만두는 것이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도 익산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해 연말 사임했다. 임기 3년 가운데 1년만 채운

시점으로 최 전 사장 사퇴후 3개월여 간 개발공사 사장은 공석이었다.

최 전 사장은 전북도 정부부지사 등을 지낸 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도전했다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중도사퇴한 것이다.

또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심보균 이사장도 익산시장 출마를 위해 올 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심 전 이사장은 행안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 2023년 공단이 사장 후보 청문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설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결국 임기 3년 중 절반을 채운 시점에 사퇴했다. 이후 수개월 간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석이었다가 최근 이지영 전 익산시 부시장이 그 자리에 임명됐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정년 5년여를 앞두고 올 봄 명예퇴직 했다. 정가에서는 최 전 부지사 역시 익산시장 출마를 노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불과 1년 남짓 해당 기관의 책임

자로 근무한 뒤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선거판에 직접 뛰어들 것은 기관장 자리가 출마를 위한 본인스펙쌓기라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책임감 없는 산하기관장들의 중도사퇴는 결국 전북도, 기관 행정의 연속성 차질과 해당 직원들의 사기저하, 후임자 임용절차 차질 등 각종 문제점을 잇따라 야기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장정철 기자

## 전북 AI 예산 400억 편성 정동영 “1,100억 증액해야”

‘AI팩토리’ 내년 예산안 편성에  
“미국 관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피지컬AI 경쟁력 확보해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내년 예산안에 전북 ‘AI팩토리’ 사업이 400억 원 편성됐으나, 1,100억 원 증액하여 최소한 1500억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독보적인 피지컬AI 기반 자율제조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다면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을 거쳐야만 할 것이고, AI는 6개월이 한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압축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가 이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전북을 기반으로 한 ‘AI팩토리’ 사업비로 400억 배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5년도 2차 추경에서 전북을 ‘피지컬AI’ 실증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 예산 229억 원(총 투자 규모 382억, 국비 229억(60%)+ 지방비·민자 153억 원(40%))을 확정했었다.

정부는 이같은 전북의 ‘피지컬AI’ 관련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4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AI 사업의 특성상 최소한 1,100억원을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 증액하여, 1,500억원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이같이 주장하는 배경은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북

부를 통해 도내 초·중·고교생 가운데 예술, 체육, 수학, 과학, 어학 등 전국대회 입상자 5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에 대해 “도민이 함께 만든 기금이 사회협약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협약은 공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정동영 의원

대상자로 최종 발표하고, 여기에 더해 AI신뢰센터 구축사업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서 전국 유일의 최종 선정지로 전주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전북이 확보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은 전북지역에 피지컬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 의원은 KBS 전북 ‘대한민국 피지컬 AI 전북에서 꽃 피우다’ 원탁회의에서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이제 전북이 피지컬AI의 메카가 되면, 곧 세계 속의 메카가 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전북 피지컬 AI사업이 정부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려면 사업 초기인 내년도에 집중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피지컬AI를 선도 중인 국가는 아직 없으며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그 첫 주자가 될 수 있다”며 “미국 관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피지컬AI에 투자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의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흔들리지 않는 피지컬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더 공격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내년 예산안 중 피지컬AI 분야는 5천억 원이 배정됐다. AI 팩토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내년에 최소 1,100억 원 증액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사회협약 제1호  
‘미래동행 장학사업’ 출범

2일 도청에서 열린 전북도 사회협약 제1호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 강태창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구미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 전북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도민이 키우는 지역 인재

도민발전재단 기반 장학사업 추진  
NH농협·초록우산과 협약 체결  
도내 우수 학생 50명 장학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함께 만든 발전재단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제1호로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사회협약 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첫 결실로, 도민 참여로 조성된 기금을 공익 장학사업

으로 추진한 사례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태창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구미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발전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도와 NH농협이 공동으로 출시

한 금융상품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을 통해 조성됐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이 상품은 예금의 연평균 잔액 0.1%가 기금으로 적립되고, 여기에 NH농협의 추가 기부가 더해져 총 5천만 원이 마련됐다.

조성된 기금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 道, 제5회 기록물 전시회…민간기록 역사 공유

하안양옥집·도청서 2차례 전시  
체육·생활사 기록물 등 다채  
메달·기념품 등 희귀 소장품 공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내외의 지속적인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록물 전시회는 2일부터 14일까지 전주한옥마을 하안양옥집에서 열리며,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전시회 첫날인 2일 개막행사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현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국가기록원 김영민 기록정책부장이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하고, 기록물 수집공모전 입상자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전시회는 전북자치도가 올해 시행한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체육행사 기록과 전북도 기록,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전시품에는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봉과 기념우표 ▲제61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접시 및 기념패가 포함됐다. 또한 ▲김제 출신 펜싱 국가대표 박순애 선수의 1986년 아시안게임 은메달과 훈장 ▲1970년대 대내 학교 운동회 사진 등이 전시된다.

생활사 관련 기록으로는 ▲1957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서 ▲새마을 운동 시절 마을회관·목욕탕 개량 모습 ▲옛 전북의 풍경을 담은 사진과 책자가 소개된다.

도 체육회 소장품으로는 ▲1984년 LA 올림픽에서 신준섭 선수가 획득한 복싱 금메달과 월계관 ▲고 최재모 선수가



전북자치도는 제5회 전북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포함된 축구대표팀의 방콕아시안게임 우승 증서 ▲각종 대회 기념 배지와 메달 등이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후손

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물려주는 일이며,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간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힘써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5차 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열어  
전북신보·문화관광재단 등  
6개 기관 최고등급 ‘가’ 획득

전북특별자치도가 2일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위원회를 열었다.

도산하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에 대한 2025년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하고,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기관 성격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I 유형)와 사회문화·복지 분야(II 유형)로 나누고, 유형별로 등급 기준점수에도 차이를 두어 왔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92점 이상 ‘가’ 등급, 이후

5점 단위로 ‘나·다·라·마’ 등급을 부여하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I 유형(경제·산업) 8개 기관과 II 유형(사회문화·복지) 8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다.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은 6개, 나등급은 8개, 다등급은 2개 기관이며, 전년 대비 등급 상승기관은 2개·하락기관은 1개로 그 외 13개 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북신보,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6개 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전년도 평가에서는 ‘나등급’을 받았으나 공통지표와 사업지표 부문 모두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다.

또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전년 대비 ‘다’에서 ‘나’로 등급이 상승했고, 전북연구원은 전년 대비 ‘가’에서 ‘나’로 등급이 하락했다.

5억원 이상 재정을 지원하고 상근직원 10인 이상인 위탁·보조기관(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효율화 점검 결과, 교통문화연구원과 장애인복지관이 ‘가등급’을 받았으며, 나등급 2개 기관, 다등급 2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 기관 운영·사업 실적과 함께 전년 대비 개선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평가검증단 절차를 신설해 결과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총점과 등급만 공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세부 점수까지 대외

공개하기로 하며(10월 예정)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영효율화 컨설팅, 임직원 교육 실시 및 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수립·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평가 방식 및 기준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평가지표도 개선하여 공기업·출연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공기업·출연기관의 역할 확대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경영평가를 통한 출연기관의 경영개선이 전북특별자치도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제26회 전북 건축문화제, 솟품 공모전 개최

도민·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전북 건축·조경 담은 작품 모집  
시상식·전시 11월 문화제서

전북특별자치도가 11월 열리는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를 맞아 도민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솟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의 건축과 조경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짧은 영상 콘텐츠에 담아내 대중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건축, 삶의 무대가 되다’ ▲‘조로빛 숨결, 건축에 물들다’ 분야 이다. 생활 속 건축물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풍경과 건축·조경이 어우러진 장면을 담아내며,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건축물로 제한된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1인(팀)당 최대 2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건축문화제 공식 홈페이지(jbaf.or.kr)에서 참가신청서와 기획안 등을 내려받아 완성된 영상을 본인 SNS 계정(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 업로드한 후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후 전문가 심사위원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점 등 총 5개 작품을 선정하며, 상장과 함께 총 2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건축문화제 기간 중 시상식과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특히 올해 건축문화제는 솟품 영상 공모전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행사로 다채롭게 꾸며지며, ‘하계올림픽 유치 범용 특별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그럼 릴스 등)에 업로드한 후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후 전문가 심사위원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점 등 총 5개 작품을 선정하며, 상장과 함께 총 2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건축문화제 기간 중 시상식과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특히 올해 건축문화제는 솟품 영상 공모전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행사로 다채롭게 꾸며지며, ‘하계올림픽 유치 범용 특별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자택 등 전격 압수수색

불법계엄 동조 의혹…피의자 적시  
추의원 “의총 장소 변경, 공모 없어”

내란특검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의원의 서울·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추 의원이 원내대표이던 시절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당시 원내대표였으며,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당사 등으로 반복, 직간접적으로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검팀의 이날 영장에는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원내부대표단 중 한 명이기도 한 조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



추경호 의원

월 3일 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계엄 직후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했고 이어 밤 11시12분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했으며, 11시 22분께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2분여간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최측근인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도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3시 33분 경 저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직했다”며 “대통령과 통화로 공모하여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 표결을 방해할 생각이었다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지 않고, 국회로 이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당사에 머물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전수조사 착수

도·시군·정부·검역본부 합동 조사  
개선명령·고발원료…체계적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개발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도는 합동조사에 앞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를 실시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도는 합동조사에 앞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

(직영 7, 위탁 18)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해 실제 운영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이렇게 예방하세요 !

전선이 손상되거나 무거운 물체에 누리는곳이 없는 점검

에어컨 내 먼지를 제거 하고 이상 이상 유무 점검 후 가동

에어컨 전용 단독 콘센트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 활용 하기

에어컨 실외기는 통풍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주변 깨끗히 치우기







#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 16.8조원 규모 편성

## 전년 대비 10.5% 증액 창업·벤처 강국·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등 중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2,488억원)보다 1조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

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한성숙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의 국회 심의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며, 그간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정책의 운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제도 부정당제재 제도개선 시급”

##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MAS자율화부작용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으며 현재 정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당제재 제도개선과 지자체의 MAS(다수공급자계약) 활용 자율화 방향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부정당당자에 대한 일률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최근 조달청에서 지자체 MAS 활용 의무화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MAS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별 계약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조달청에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

장규진 위원장은 “우·러 전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중소기업계는 ‘퍼펙트 스톱’에 직면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들의 활동가 협로가 되지 않도록 부정 당제재 제도개선 등 적극 행정이 시급

하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기전대, 산학협력 협약 체결

## 산학연 협력 기반 강화 지역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재수)는 2일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에 적합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주기전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재수 회장, 박병용 상생협력위원장이, 대학교에서는 조희천 총장, 김광수 처장, 조현진 교수, 객성운 교수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지역산업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RISE 연계 협력 방향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및 논의체계 구축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조희천 총장은 “협약 체결을 위해 참석해준 이재수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인 2차전지 인재양성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재수 회장은 “이번 전주기전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은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전기공사 분야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2일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에 적합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주기전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농진청, 원예작물 기능성 소비자 인식 조사

## 응답자 56.8% 긍정 평가 소비 촉진·개발 전략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원예작물 소비 촉진과 기능성 소재화 연구개발 전략을 모색하고자 원예작물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자 집단(패널) 278명을 대상으로 6월 1~20일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유통 관계자 4명 심층 면접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76.2%는 ‘원예작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기능성을 기대하는 채소로는 토마토(51.4%), 양파(50.4%)가 많이 꼽혔고, 양배추(29.5%), 마늘(27.0%)이 뒤를 이었다.

과일에서는 사과가 68.0% 응답률을 보이며 압도적이었고, 다음으로는 귤(33.1%), 블루베리(24.1%), 포도(21.2%) 순으로 조사됐다.

기능성 원예작물 섭취 목적으로는 건강한 식습관 유지(26.4%), 면역력 강화(24.6%), 맛/식감(24.1%), 질환 예방

(10.6%), 체중 조절(8.6%), 피로 해소(5.2%) 등을 들었다.

소비자들은 기능성 원예작물을 섭취할 때 ‘있는 그대로(원물) 섭취(44.8%)’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이어 ‘즙이나 액상 가공품(34.7%)’, ‘간편 제품(5.4%)’으로 섭취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56.8%가 ‘원예작물을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 의사를 보여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밝음을 시사했다.

원예작물의 기능성 정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1%가 ‘성분과 효능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단 정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정보 제공(34.5%)’, ‘기능성과 관련된 정부 인증 제도 강화(29.3%)’, ‘제품 포장지 정확성(12.4%)’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앞으로도 원예작물의 기능성을 충분히 활용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보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협 노동조합, 팜스테이마을 활성화 앞장

## 전통식품체험 등 마련

전북농협 노동조합(위원장 박병철)은 2일 순창고추장익는마을에서 여성조합원들의 팜스테이마을 체험 행사를 후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협 노동조합과 NH도농상생운동본부의 후원으로 도시

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식품체험 및 팜스테이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통 방식의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매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등을 직접 혼합하며, 조상의 지혜와 손맛이 담긴 전통 장(醬) 제조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박병철위원장장은 “농촌의 숨겨져 있는 보물, 팜스테이마을 체험행사가 도시민과 농촌이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 노동

조합은 지역 농촌 경기 활성화와 농산물 소비 촉진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노동조합과 NH도농상생운동본부의 팜스테이마을 체험 후원은 8월에 이어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50여명의 도시민들에게 혜택을 줬다.

/정소민 기자

##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년 일자리 매칭 나선다

###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이하 전북교육청)과 ‘2025년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9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공동개최한다.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직업계고 출신 기술인재의 지역안착을 돕고자 전북중기청과 전북교육청이 뜻을 모아 2023년부터 시작돼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타지역 유출이 늘어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자청된 구직자까지 확대시켜 우수 제조업부터 바이오, 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중소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20개 일자리 유관기관이 성공적인 인력매칭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에서는 ‘25년 8월부터 학생 구직자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실전면접교육’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강화한 후 참여기업과 사전매칭을 진행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청년구직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기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고, 정책알림에 동의한 도내 청년에게는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63개사가 오전·오후로 나누어 총 34개 부스에서 현장면접을 진행하고, 지문적성검사 등 구직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8개 기관에서 취업컨설팅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채용상담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과 기관에 취업한 선배직무자가 취업노하우 공유와 구직자의 애로상담을 진행하며 노무상담과 다양한 정책을 안내해 주는 정책홍보관 외에도 메타버스 등 다채로운 기타 부대행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전북은 매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청년 실업률 또한 높다”며 “이번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통해 우리지역 우수중소기업과 유능한 청년인재와의 일자리 매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부안군, 마실상권 추석선물세트 할인판매

### 30일까지 할인·무료배송

부안군문화재단 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는 중소기업부 동행축제 일환으로 온라인판매활성화를 위해 부안나드리 추석선물세트를 기획해 20% 할인프로모션과 무료배송을 진행한다.

부안나드리는 부안상설시장 및 부안권역의 좋은 제품을 발굴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신규가입자에게 1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며, 9월 한달간은 추석선물세트 및 임점제품 20%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쿠폰적용기간은 30일까지이며, 배송은 26일에 마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buannadri.com에서 확인가능하다.

/부안=신상수 기자

## 건설협회-고용노동부, 건설산업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공영철)은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소재철 회장은 “전체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이하 사업장 및 50억 이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조속히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소향을 수시로 살피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보편적인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분야의 제도와 현장 점검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미조치 사항을 협회와 공유해, 지역건설현장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영철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산재예방과 감소를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역 건설사의 안전관리 역량과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안전한 건설문화가 현장 곳곳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 들어 가자”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더드림 이벤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연 0.3%p 우대금리를 더해 만기이자 3.3%를 주는 더드림 가입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시중은행 적금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만기시 연 3.3% 고정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금리 혜택을 강화하고, 공제기금 소비 촉진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노동조합과 NH도농상생운동본부의 팜스테이마을 체험 후원은 8월에 이어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50여명의 도시민들에게 혜택을 줬다.

/정소민 기자

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대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연 5.5%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부족 시 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연 4.25% 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후순위가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가입을 통해 향후 자금 필요시 활용 가능한 대출 기반을 중소기업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

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 5개 시군, 자기주도 학습 발판 마련

## 순창·정읍·김제·장수 고창 ‘자기주도 학습 센터 공모사업’ 선정

전북 5개 시군이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순창, 정읍, 김제, 장수, 고창 등 도내 5개 지역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으로 개별 학습이 가능한 독서실과 모둠 활동을 위한 회의실, 편안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특히 학원이나 민간 스터디카페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은 신청 지역 모두 선정되면서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는 상호 협력해 지역과 소득수준의 차이가 학습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맞춤형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학습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업의지와 소득수준, 학교장의 추천 등을 고려해 선발된 중·고등학생들이 이 공간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주도 학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격차를 완화하

는 중요한 교육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성넷, 양성평등문화상 문체부장관상 수상

양성평등 인식 제고 노력 인정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을 비롯한 12개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는 전북 문화예술성평등 네트워크(이하 전성넷)가 2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제18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에서 단체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 환경 조성과 인식 제고에 노력한 단체 및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중 ‘단체 부문’을 수상한 전성넷은 재단을 비롯해 고창문화관광재단, 군산문화관광재단, 부안군문화재단, 순창발효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등 총 12개 기관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전성넷은 102회에 걸친 회의와 누

적 341시간의 논의를 통해 ‘전성넷 자체가 성과’라는 강한 연대 의식을 구축했으며,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 확산 공동선언문 작성과 업무협약 등으로 결실을 맺었다. 올해에는 군산·순창 재단이 새롭게 합류해 총 12개 기관으로 확대되며 활동 저변을 넓혔다.

현재는 지역의 실정과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관광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문체부장관상 수상은 전북 문화예술계가 함께 힘을 모아 성평등한 환경을 만들어 온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전북 지역 곳곳에 성평등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관리본부 개소

## 글로벌대학30사업 일환 남원 서남대 폐교 부지 재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9월 2일 전주캠퍼스 내에 ‘남원글로벌캠퍼스관리본부’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캠퍼스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윤명숙 남원글로벌캠퍼스관리본부장(대외취임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 이성호 남원부시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남원글로벌캠퍼스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전북대는 교육부 글로벌대학30사업의 일환으로 남원 서남대 옛 부지를 유

학생 전용 캠퍼스로 재생해왔다.

내년부터는 글로벌커머스학과(정원 100명), 한국어학과(80명), K-엔터테인먼트학과(70명) 등 3개 학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전담 전임교수를 새롭게 채용해 교육뿐 아니라 학생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을 연 관리본부는 유학생 학사 지도, 생활 지원, 행정 운영 등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환경 마련, 지역 협력 체계 구축, 유학생 유치 지원 등을 담당하며 2027년 3월 남원글로벌캠퍼스가 남원에 구축이 완료되면 이전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남원글로벌캠퍼스는 단순한 유학생 유치기관이 아니라 지역



의 자산과 문화를 세계와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모델로 만들겠다”며 “남원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

공적인 정착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 박노준 우석대 총장, ‘야구와 리더십’ 특강

35사단서 경청·소통 강조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이 2일 제35보병사단 대강당에서 장병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야구를 통해 본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박노준 총장은 야구선수과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야구를 매개로 한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과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강연 초반에는 커브와 포크, 싱커, 슬라이더 등 다양한 투구법과 함께 기업이 프로야구팀을 운영하는 이유와 우승을 위한 전략, 감독의 역할 등 야구의 기본 개념을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풀어내며 장병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박노준 총장은 과거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리더십에서 현대적 리더십으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칭찬과 배려, 긍정적 사고를 유도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버트 리더십’의 개념을 소개하며,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의 성장을 돕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통찰력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준 총장은 “진정한 리더는 적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며 제갈량과 탈레란 등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들어 리더의 자세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경청의 태도와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는 소통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 군산대,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도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실현

국립군산대학교가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본격화 했다.

군산대학교는 지난 1일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IR(Institutional Research)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실현하고, 과학적 성과관리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회는 1차 확대간부회의와 2차 대학구성원 전체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에 구축되는 IR시스템은 대학 교육·연구·행정 데이터와 성과지표를 통

합 관리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각종 평가 대응 △성과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KAMS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사구조 유연화, 전공 선택권 확대,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교육 혁신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군산대 엄기옥 총장 직무대리는 “IR시스템은 대학의 성과를 단순히 집계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전략과 개선폰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혁신 관리체계를 통해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2025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은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교급식을 통한 배려와 감사·환경보호 실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공모 분야는 그림일기(초 1~3학년), 포스터(초 4~6학년/중·고생), 캠페인 사진(초·중·고생), 숏폼(초·중·고생), 이모티콘(초·중·고생, 교직원) 등 5개 분야다.

공모 주제는 △건강한 나를 위한 ‘영양급식’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생태

급식’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는 ‘인성급식’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각 분야별로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 3편, 장려 10편을 선정해 교육감상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자료집으로 제작해 바른 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홍보 전시 등에 활용된다.

작품 제출 규격,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이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성민 기자

집중호우  
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끄러짐 주의**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뒷사람 주의**  
우산을 접을 때 뒷사람을  
주의해 주세요.

**외출 자제**  
호우가 시작되면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기상 정보 확인**  
기상예보 및 태풍 상황을  
주의 깊게 청취하세요.



## 익산시, 전 직원 대상 '청렴 실천 결의대회·청렴콘서트' 개최

익산시가 공식사회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와 청렴콘서트를 열고 반부패·청렴 의지를 다졌다.

시는 2일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결의대회·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달 새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들이 청렴 의지를 밝히기 위해 나섰다. 강형우 바이오농업과 주무관과 이선영 복지정책과 주무관이 전체 공무원을 대표해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모두 '청렴 으뜸 익산' 구호를 외치며 한마음으로 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결의대회에 이어 진행된 청렴콘서트에서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청렴 법령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문화공연 형식으로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 무대에서는 청렴 미술공연, 상황극, 팝페라 공연 등 문화체험형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실천의 공감대를 확산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28명 검정고시 전원 합격

정읍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28명이 지난 8월 12일 시행된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해, 8월 29일 발표 결과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2주간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했다. 수업은 청소년문화체육관 꿈드림사업실에서 진행됐으며, 영어·사회·한국사·국어 등 주요 과목 학습 지원과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도가 병행됐다.

특히 교육멘토 2명이 참여해 기술문제 풀이와 핵심 정리를 제공하면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같은 지원은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업뿐 아니라 진로와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 영등2동 신사닭갈비 착한가게 가입·나눔 활동 동참

익산시 영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하명남·유방용)는 2일 '신사닭갈비(대표 오민재)'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사닭갈비는 맛과 정성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음식점으로,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나눔 활동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했다.

오민재 대표는 "평소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 착한가게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명남 영등2동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에 동참해 주신 신사닭갈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민관이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가게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웃사랑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를 이어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 내년 국비 1조 원 돌파 '역대 최대'

## 1조 7억 원 반영 올해 대비 1,004억 증가 전략적 예산 외교 성과

익산시가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익산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조 7억 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정부안인 9,003억 원 대비 1,004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국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정부예산안 반영액 기준으로 2024년 8,821억 원, 2025년 9,003억 원에 이어 최초 1조 원 돌파를 달성했

다.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체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부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전방위적 설득 작업을 벌였다.

아울러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것도 주효했다.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기숙사 건립(2억 6,000만 원) △다자인진흥원 건립(1억 원) 등 총 147억 원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28억 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건설(444억 원) 등 총 9,860억 원 규모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

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이에 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반영 사업은 지켜내고, 미반영 사업은 추가로 담아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 예산 외교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정부예산안 반영에 안주하지 않고 국회 단계 총력 대응으로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시-안호영 환노위, 왕궁 복원 한뫼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요청·수생태계 복원 기대

한센인의 애환과 환경오염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익산 왕궁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통해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과 함께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정시장은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의 핵심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오랜 기간 축산업으로 훼손된 182만㎡ 규모의 땅을 수달, 맹꽂이, 샛 등 멸종위기종이 살아 숨 쉬는 생태환경으로 복원하는 대규모 국가 시범사업이다.

환경부는 2023년 익산 왕궁을 국가 주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전북지방



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는 등 올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이 완성되면 왕궁은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생명의 땅으로 재탄생해 전국이 주목하는 자연환경복원 생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세계녹색복원 엑스포 유치 등을 통해 국제 회의, 정책세미나, 워크숍,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익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왕궁 자연환경복원

사업은 단지 지역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와 약속한 생물다양성 복원 목표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물론,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을 익산시장도 "왕궁은 한센인의 아픔과 환경 훼손의 상처를 동시에 간직한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 사업이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를 담은 국가적인 생태복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새만금 RE100 산단 조기 지정 건의

## “국가가 약속한 스마트 그린 1호 산단 실현해야”

강임준 군산시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등 중앙부처 주요 인사를 만나,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인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에 발맞춰, 새만금·군산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됐다.

또, 새만금은 이미 2022년 7월 7일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어, 정부 정책의 상

징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논리다.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당시 기업들은 새만금이 곧 RE100 산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와 입주를 준비했으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연으로 기투자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기 중인 세계 우수 기업들도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군산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새만금의 RE100 산단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 지역도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보유하고 있으나, '스마트그린 산단 1호'라는 상징성과 기투자 기업 보호, 글로벌 투자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새만금이 우선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는 7GW 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력 수요에 민감한 글로벌 RE100 참여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또한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어 첨단 제조업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의 입지 조건도 충족한다.

이번 건의를 통해 군산시는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이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은 국가가 약속한 스마트그린 1호 산단이다. 이제 RE100 산단 지정으로 그 약속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청년농 정착 도와

## 22일까지 공모 신청 보조금 70%까지 지원 가능

정읍시가 스마트농업 전환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6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온실, ICT, 에너지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해 청년들이 곧바로 농업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자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청년농업인이다. 지원 항목은 기반조성(전기·배수·진입로 등), 온실 신축, 에너지시설(보온커튼·난방기), ICT 장비와 재배시설 구축이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전문 컨설팅과 기술교육, 청년리더 교육 등 소프트웨어 지원도 병행된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최대 2000㎡이며, 지원 단가는 4억4000만원이다. 보

조금은 70%까지 지원되고 자부담은 30%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사업 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ICT와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농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쌀 ‘옥토진미’ 전북 우수브랜드 대상

### 못잊어 신동진·큰들쌀 2년 연속 상위권 쾌거

군산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2025년 전북 우수브랜드 쌀' 평가에서 군산시 브랜드 쌀인 '옥토진미'가 대상, '못잊어 신동진'이 최우수상, '큰들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브랜드쌀의 품종인 신동진이 우수한 밥맛과 품질은 물론,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철저한 시설 관리와 품질 관리 체계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군산시 3개 브랜드쌀이 최근 2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군산시는 신동진 쌀의 최적지이자 신동진 본고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

농업기술센터 황관선 소장은 "앞으로도 군산 쌀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농가소득·소비자 신뢰↑

정읍시가 2026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산지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도입을 지원해 신선도 유지와 출하 조절,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김치가공업체,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지저온시설 △저온

수송차량 등이다. 저온저장고는 최대 660㎡(㎡당 130만원), 저온선별장은 최대 660㎡(㎡당 90만원), 저온수송차량은 최대 5.5톤 이하(신규 1억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율은 60%, 자부담은 40% 비율로 책정됐다.

사업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해당 사업 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저온유통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읍 농산물이 더욱 경쟁력 있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관내 건설 현장 안전점검

산업재해 예방·안전 문화 확산

군산시는 관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관내 주상복합 건설 현장 시공상황 확인 △시공상황 안전성 강화 및 주변 시설물 피해 예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실시했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추진현황 파악 등을 통해 공사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건설노동자 안전사고 예방교

육 실시 △사업장 폭염 대비 기본수칙 △사업추진 상태 및 현장 안전관리 등 준수 여부 등도 세심하게 살펴봤다.

이외에도 올여름 내내 지속 중인 폭염에 대비한 폭염저감시설 운영상태와 건설경기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역 내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과 추직 명절 전에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내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지황 디저트·케이크 경연대회’ 개최

활용 가치 발굴…17일 열려

정읍시와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전북과학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정읍지황 디저트·케이크 경연대회'가 오는 9월 17일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정읍의 대표 특산품인 정읍지황의 새로운 활용 가치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은 예선과 본선 두 단계로 진행되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다. 경연 부문은 케이크·디저트 단일 부문으로, 참가팀은 '숙지황 농축액'을 활용해 창의성과 상품성을 갖춘 작품 1종을 출품해야 한다. 본선 참가팀 전원에게 숙지황 농축액이 제공되며, 심사위원 평가와 전시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작품을 준비해야 한다.

대회 현장에서는 심사와 함께 관람

객을 위한 시식 행사도 마련된다. 수상팀은 별도의 시식용 제품을 준비해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정읍지황 디저트를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500만원으로, 대상 150만원(1팀), 최우수상 100만원(1팀), 우수상 70만원(1팀), 장려상 각 20만원(9팀) 등 본선 진출팀 전원에게 수상이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전국 고등학교 이상으로 2인 1조 이내 팀으로 응시할 수 있다. 접수는 10일 오후 6시까지 정읍지황 공식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한 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지황은 전통 약재로서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원료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정읍지황의 우수성과 가능성이 전국에 알려지고, 지역 농가와 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순창발효미생물진흥원, 자원관리기관 지정

### 농진청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그린바이오거점·연구협력 확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 자원관리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국내 그린바이오 미생물 산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기업들은 산업용 미생물을 보다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바이오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진흥원은 이를 기념해 지난 1일 현관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동안 진흥원은 순창을 '발효미생물 글로벌 종가'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미생물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완공된 유용미생물은행으로 이전하면서 최대 30만 건의 생물소재를 보존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확보했다.

현재는 전국에서 수집한 농업·축산·식품 관련 시료로부터 6만 5천여 점의 미생물 자원을 분리·보관하고 있으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관리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순창군>

이를 기반으로 특성 평가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진흥원은 국내 발효미생물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인 그린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토종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농촌진흥청으로 부터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농업생명자원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대학, 민간연구소 등 총 78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산업형 민간기관 2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진흥원이 그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이번 지정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한편, 진흥원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생물(식품)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수, 장관 방문 앞두고 통합찬반집회 자제 요청

### 3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완주 방문 주민 충돌 우려…집회 취소 당부

유희대 완주군수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문을 10만 완주군민과 함께 환영하며, 동시에 통합 관련 찬반 양측이 집회신고를 한 것 과 관련 취소를 요청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윤 장관은 오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완주군을 방문한다.

군은 인재개발원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이번 방문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방문과 관련해 완주·전주 통합 찬반 단체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함에 따라, 유 군수는 장관 방문 취지에 맞지 않고 우발적인 마찰과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유 군수는 “다양한 의견 표명은 존중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찬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경우 주민들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합 문제는 대립보다는 공론화를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군수는 최근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속의 과정을 통해 군민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찬·반 바로 알리기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유 군수는 향후 공론화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농업, 소상공인, 교육, 문화, 체육 등 분야별 간담회와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세대별 간담회를 차례로 열어 각계각층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유 군수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과정이 통합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 하수슬러지 악취 해결 RTO 설비 도입

### 12억 투입 악취방지설비 개선 완료 악취 배출 기준 절반 이하로 낮춰

남원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했던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악취방지설비 개선 사업은 기존 설비의 파손에 따른 악취 누설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 해결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12억 원(특별조정교부금 5억, 남원시 7억 원)이 들었다.

악취방지시설 시운전 후 측정한 악취

배출 농도는 배출허용기준(배출구 기준 500배 이하)의 절반 수준인 300배 이하로 떨어졌다.

새로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은 남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며, 악취로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수용성 악취 물질을 직접 태우는 RTO(슬러지처리시설)의 최종 공정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된 가스를 고온으로 연소처리해 유기성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방식으로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시설물 내부 잔류 악취 물질을

처리하는 악취세정탑 및 미생물세정탑 시설도 정비해 악취 제거 효율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 발생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지난 2011년 설치돼 하루 30톤의 하수슬러지를 가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중시설로 민간 관리 대행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청년 스마트팜 창업 패키지 지원 접수

### 개소당 최대 3억800만원 지원

남원시는 ‘2026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청년들에게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온실신축, 에너지시설, ICT 장비 및 재배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개소에 사업비 총 2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4개소에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 청년 중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와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이며, 개소당 3억8백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



남원시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서와 구비서류를 9월 19일까지 제출하고 서류 심사 및 심의회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다각적인 스마

트팜 정책으로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선수단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9월 1일 결단식을 가졌다. <사진=순창군>

### 순창군, 제62회 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 개최

#### 33개 종목 600명 선수단 파견 대회 종합 7위 목표 다짐

순창군 선수단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지난 1일 결단식을 가졌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결단식은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순창군체육회(회장 손종호)가 주최한 결단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오은미 도의원 등 내빈들과 체육회 임원, 종목별 회장 감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결단식은 개회, 내빈 소개, 국민 의례에 이어 출전 현황 보고, 단기수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순창군은 33개 종목에 출전하며, 임원 80명, 코치와 주무 80명, 학생선수 60명, 일반선수 380명 등 총 600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한다.

지난해 순창에서 열렸던 제61회 전북도민체전에서 순창군 선수단은 종합 4위라는 쾌거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으며, 이번 대회는 종합 7위를 목표로 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청년 1인당 15만원 문화포인트 제공

#### 2025년 문화드림 지원사업 추진 19일까지 대상자 온라인 접수

완주군이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완주청년 문화드림 지원사업 신청자 32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완주군 거주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전용 온라인 신청사이트(wjyouth.ezweel.com)를 통해 진행되며,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신청은 소득 수준(70점)과 거주 기간(30점) 정량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최종 선발자는 9월 30일 오후 6시 개

별 문자로 통보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농협 신용·체크카드와 연계해 지급된다. 포인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다.

온라인은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문화·여가, 자기계발, 관광 등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에듀페이 지급 대상자 △전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문체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급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 선정

#### 전북도·진안·임실과 함께 선정 공공시설 충전기 20기 설치 예정

남원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남원·진안·임실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충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해 충전 시설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남원시는 부지 제공과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선정된 민

간 충전 사업자는 국비 지원을 받아 남원시 내 충전 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청,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생활 거점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급속·완속 충전기를 포함해 20기 이상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더 손쉽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종 선정 시상

완주군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우수부서 10개, 우수팀 2개를 선발해, 지난 1일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군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주요사업, 민원서비스, 지방재정 적극집행, 군정홍보, 국가예산 등 5개 분야에서 개인 8명(최우수 2명, 우수 6명)과 우수부서·팀 12곳(부서 10곳, 팀 2곳)을 최종 선정했다.

군 주요사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해란 팀장은 아동육부즈퍼슨사 무소, 아동민원센터 조성 등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

화도시 완주’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원서비스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재난안전과 이승환 주무관은 침수 예방과 응급복구 소요 행정력과 예산을 최소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군정홍보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과 최우수부서로, 인구정책과가 우수부서로 각각 선정됐으며, 국가예산 분야에서는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과 문화역사와 문화정책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발된 공무원과 부서는 선정 등급에 따라 군수표창, 포상금,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삼례읍 월산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 주민 의견 청취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1일 삼례읍 월산제 저수지에서 둘레길(데크길)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덕 위원장을 비롯해 농원마을 주민 등 10여 명이 참석해 월산제 저수지 활용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월산제 저수지를 지역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저수지 주변 제조작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길(둘레길) 조성 추진 △둘레길 완공 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발전 등 단계별 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단계별 추진 방향에 공감하며, 둘레길 조성이 실현될 경우 △저수지 주변 환경 정비 △주민 여가 공간 확충 △지역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월산제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지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의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둘레길 조성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삼례읍의 새로운 명소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 수확량·내병성 강화 참가 영웅·하니울 첫 수확 시작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 확산 단지조성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장에서 기계화에 적합한 하니울과 초다수성 영웅 품종 수확을 시작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 보급한 참깨 ‘영웅’, ‘하니울’ 품종을 보급받아 급변에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확산 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00,000천원, 11ha를 추진했으며 수확량 증가 및 내병성 강화로 농업인에게 만족이 매우 높았다.

‘영웅’ 품종 수확량은 1,000㎡당 158kg로 지금까지 개발된 참깨 품종 중에서 가장 많다. 기존 품종 ‘건백’보다 28% 많은 양이며 역병, 시들음병, 흰가루병, 잎마름병 등에 모두 강하고 재배 안정성이 높아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에 파종하면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에 수확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니울’ 품종은 종자불임성(네타립성)이 좋아 맨 위쪽 꼬투리가 다 익어 벌어져도 낱알이 떨어지지 않아 기계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보통형 콤바인으로 베기와 낱알 떨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참깨를 콤바인(보통형 콤바인)으로 수확했을 때 기존 인력 수확에 비해 작업시간 99%, 비용은 74% 절감할 수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장 김흥수는 “참깨 신품종 확대보급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틈새시장 및 고소득 작목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자기혈관 숫자알기’ 시장·터미널서 레드서클 캠페인

순창군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일 재래시장과 터미널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레드서클(Red Circle)’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 캠페인의 대표 상징으로 건강한 혈관을 의미하며, ‘자기혈관 숫자알기’는 개인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받아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을 통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의료이용률 통계에 따르면, 해당 질환 환자 비율이 전국 30.82%, 전북 35.9%인 반면 순창군은 44.01%로 전국 및 도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예방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캠페인 기간 동안 혈압·혈당 측정 서비스와 전문 건강상담을 제공했으며, 리플릿을 배포해 예방 메시지 확산에 주력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주)남강종합건설, 부안군에 성금 100만원 기탁

(주)남강종합건설(대표 김정)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일 부안을 이웃돕기 성금 100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됐으며 부안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김정 남강종합건설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동일 부안읍장은 “기업의 따뜻한 나눔이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군산 서군산산업단지 기업체, ‘나눔기부 릴레이’로 이웃사랑 펼쳐

군산시 옥구읍행정복지센터는 서군산산업단지 기업체 4곳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하는 착한가게 단계 가입식 및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열렸던 행사에는 손수경 옥구읍장, 전근식 옥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준기 서군산산업단지 관리소장, 삼호네트(대표 박남민), 태랑(대표 박현), 세원이엔에스(대표 정지민), 서진공사(대표 이옥구) 4개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신규 가입한 기업체 모두가 자리한 서군산 산업단지는 안전망 제조·철관류 제작·전기공사·건축공사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지역 산업 거점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나눔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기업체 대표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고자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더생생한의원·생생한약방, 정기기부로 이웃사랑 실천

### 전주시복지재단에 월200박스 보원탕·쌍화탕 정기 후원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2일 완주군 중화산동에 위치한 더생생한의원(원장 이광진)·생생한약방(원장 이흥신)과 지역사회 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더생생한의원·생생한약방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원하는 보원탕과 쌍화탕을 매월 200박스(연간 9800만 원 상당)씩 기부하기로 했다.

전주시복지재단은 기부받은 물

품을 전주시 34개 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흥신 생생한약방 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이 많고, 그들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닥는 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더생생한의원과 생생한약방의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부해주신 물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주)골드밴, 화심도요에 1천만원 상당 유압도끼 기증

### 예술인 위한 메세나 실천

완주군 테크노밸리에 공장을 준공한 (주)골드밴이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심도요에 1,000만 원 상당의 ‘유압도끼(장작절단기)’를 기증했다.

최근 진행된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화심도요 임경문 작가와 (주)골드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지난 6월 화심도요 개요식에 참석한 (주)골드밴(대표

김수덕)측이 현장에서 예술인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기증의사를 밝히며 성사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 기업체가 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은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군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김제시탈기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탈기연합회(회장 이태훈)가 2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전달된 성금은 공동생활가정인 코비그룹홈과 소망그룹홈에 지원돼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코비와 소망그룹홈은 아동들이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같은 물품을 받는 보금자리로, 이번 후원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 기반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회장은 “탈기는 정성과 사람이 모여야 달콤한 열매를 맺듯, 나눔도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이번 성금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상하면 상라마을김재평씨, 성금 100만원 기탁

고창군 상하면 상라마을 김재평(88)씨가 지난 1일 상하면 주민행복센터를 찾아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재평씨는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는 도라지정과 판매 수익과 사재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김재평씨는 “오랫동안 마을과 주민들과 함께해 온 시간이 소중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표영현 상하면장은 “김재평님의 꾸준한 봉사와 이번 뜻깊은 기부는 상하면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대한적십자사 진안군 봉사회, 수해 피해 가구에 상품권 전달

대한적십자사 진안군 봉사회(회장 김정숙)는 지난 1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성수면 가수마을 8가구에 총 3,110,900원 상당의 수해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과 후원물품으로 기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해 화장지, 이불, 세제, 주방용품 등 생계에 꼭 필요한 생필품들로 구성됐으며,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 남원 도동동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에 양산 전달

남원시 도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경보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거어르신, 장애인,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양산’을 전달하여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올여름에는 폭염에 취약한 대상으로 ‘양산’을 지원해 햇빛에 나가는데 무서웠는데, 무더위를 이겨내도록 폭염지원물품을 챙겨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임실 강진면, 도로 잡초 풀베기 작업 실시

임실 강진면이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강진면 관내 갈담3교~상율지(하운암 경계) 구간인 군도 46호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로에 자란 잡초를 정비하여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황선희 강진면장은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강진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자동차 안에서 폭발할 수 있는 폭발성 물건 두지 않기**

**라이터**

**스프레이**

**손 소독제**

# 안전한 차량 관리법

## 폭염에도 안전할수있는 자동차 관리 방법!

**01**

**냉각수**

점검하기

**02**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기

**03**

**배터리**

점검하기



〈一事一言〉



이 대통령 첫 미·일 정상회담, 창의적 ‘실용 외교’ 빛났다(1)

오태규  
언론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일본-미국 연쇄 순방(8월 23~24일 일본, 24~26일 미국)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겨냥해 ‘숙청’, ‘혁명’이란 협박한 용어가 담긴 메시지를 발신해 긴장감이 돌기도 했으나, 회담 뒤에 ‘위대한 지도자’ ‘전폭 지지’라는 찬사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미국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상상 이상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니 일본 쪽으로선 당연히 ‘즐거움 놀람’(pleasant surprise)을 느꼈을 겁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일본 주류 사회에서 ‘반일 진북’의 과격한 지도자로 낙인찍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놀라움의 강도를 더욱 높인 이유입니다.

일본 총리 중에서도 미국 방문 직전에 한국을 먼저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입니다. 1982년 11월 총리가 된 그는, 다음 해 1월 11일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총리의 첫 공식 방한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 내내 군사 정권을 지지하는 인상을 줄까 봐 공식 방문을 사려왔던 일본 총리가 ‘광주의 피’를 제물 삼아 등장한 전

두환 정권 때 ‘이중(二重)의 첫 번째’라는 역사적 의미를 띤 방한을 결행했으니, 많은 한국 사람이 ‘불쾌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카소네가 미국 방문(1월 17~20일)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 건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미 외교력을 강화하며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는 다층적인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에 이은 미국 방문에서 그 유명한 ‘일본 열도 불점항모’ 발언을 합니다. 전후 맥락으로 봐, 그의 선 한국 방문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나카소네 총리가 이끄는 소련대항 연합전선에 전두환 군사 정권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직전에 먼저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히 말해, 한일 간 ‘동병상련의 연대’를 꾀하려는 전략적 노림수라고 봅니다. 한일 두 나라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뿜는 경제·안보 양면의 ‘광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한일은 미국과 동맹이면서 통상 중심 국가이고, 혼자서는 미국에 맞설 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때 두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비슷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위기를 타개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서 굳이 과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미래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

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는 〈적대적 제휴-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체제〉라는 책에서, 한일 두 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방기의 위험을 공유할 때 서로 불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부터 방기의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비대칭적일 경우에 한일의 역사 갈등이 재발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밀어내려온 건 한일 두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거센 압박을 받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 발 격동의 세계’에 대응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꾀하려는 몸부림은 일본의 사례 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미 수출 몫이 한국 이상으로 큰 동남아의 강국 베트남의 또 럽 공산당 총서기를 첫 국빈 방문 대상자로 받은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미국 순방에 이어 바로 독자 외교의 전범국 인도도를 방문한 것, 이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한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 대신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함께 묶어서 보면, 공허한 가치와 진영에 갇혀 허장성세 외교에 허우적대던 윤석열 정권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초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달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

통령은 주도면밀한 준비로 트럼프의 럭비공 공세를 피하고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peace maker)를 하고 나는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를 하겠다’라는 말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론할 때 이 대통령의 대응에 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소인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등 아주 민감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주의 품격, 케이블카 사업으로 훼손돼선 안된다

전주가 위험하다. 도시의 품격과 정체성을 지켜야 할 시장이 오히려 그 뿌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아니다. 이는 전주라는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시민과 전문가 다수가 우려하는 이유를 외면한 채 개발에만 집착한 정책으로 보인다.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 1.0을 간신히 넘겼다는 점은 수익성 불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국 곳곳의 케이블카 사업이 적자 운영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결국 막대한 사업비 부담은 혈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전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도시의 정체성과 경관 훼손이다. 케이블카 노선은 기린봉, 동고사, 견훤왕궁터 일대를 관통한다. 이곳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이 응축된 공간이다. 송전지주와 정류장을 세워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식은 전주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 관광객 몇 명 더 유치하기 위해 전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절차적 정당성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주민설명회는 형식에 그쳤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케이

블카 사업에서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다. 전주천의 버드나무를 시민 의견 수렴도 없이 대규모로 베어내고 덕진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공원 보존보다는 아파트 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우 시장의 시정은 시민과 점점 멀어진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우 시장을 공천해 당선시킨 정당이라면, 시정이 시민의 뜻과 괴리될 때 제동을 걸고 바로잡을 정치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전주가 특정 정치인 개인의 개발 프로젝트로 흔들리도록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

전주는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도시가 아니다. 시민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며 관광은 그 품격과 매력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 도시의 본질을 희생해 인공적 조형물로 치장하는 일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도박일 뿐이다. 지금 시민이 궁금한 것은 케이블카가 실제로 설치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시장이 과연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범기 시장은 이제라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케이블카 사업이 전주 시민의 삶과 도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취소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진정한 용기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 발휘된다. 전주의 미래가 시장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시민 합의와 도시 철학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케이블카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문화재열전



한국사 극락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종교신앙, 불전  
-지정일- 1974년 9월 27일  
-시대- 고려시대  
-소재지-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1050 (괴목리)

▲오늘의시

가을별 / 박노해

가을별이 너무 좋아  
고추를 따서 말린다  
흙마당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는  
물기를 여의며 투명한 속을 비추고

높푸른 하늘에 내걸린 흰 빨래가  
바람에 몸 흔들며 눈부시다  
가을별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

내 슬픔을  
상처 난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살아온 날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8년 특별 사

면으로 출소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                                                          |                    |                                                                              |                    |
|----------------------------------------------------------|--------------------|------------------------------------------------------------------------------|--------------------|
| <b>JBT 전북타임스</b> Jeonbuk Times<br>www.jeonbuktimes.co.kr |                    |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발간우) 54990<br>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 발행, 편집인 송민순                                              |                    | 편집국장 장정철                                                                     | 인쇄인 김은주            |
| 대표전화 282-9601                                            |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
| 전주시시 010-9845-4113                                       | 군산지국 010-8841-7942 | 무주지국 010-8411-0835                                                           | 부안지국 010-7247-3947 |
| 중앙지시 010-98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
| 인후지시 010-8640-6855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완주지국 010-3672-0308 |
| 팔백지시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826-8049                                                           |                    |
| 송천지시-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전북타임스신문은 독자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3-8800





김제 국가유산 여행,  
조선의 밤으로 떠나는 3일간 여행



1. 라온소리중창단
2. 파금각
3. 김제동헌
4. 청사초롱
5. 전통액션희극
6. 버블공연

김제시(시장 정성주)에서 무더위에 지친 여름 밤을 시원하게 즐겨 보자.

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김제의 심장이자 역사의 터전인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및 전통시장 일원이 특별한 무대로 변신한다고 밝혔다.

시는 7년 연속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돼 조선시대 행정기관(관아)과 교육기관(향교)을 무대로 '2025 김제 국가유산야행'을 준비했으며 지난해보다 한층 더 즐길거리 가득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025 김제 국가유산 야행”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야간 문화 향유 프로젝트다. 낮에 보이던 국가유산의 매력과는 달리 밤에 새롭게 빛을 발하는 국가유산의 매력이, 더해져 빛과 이야기, 체험으로 되살아난다.

그렇다면, 김제에서 느낄 수 있는  
‘2025 김제 국가유산 야행’을 세밀하게  
살펴보자.

☐ 올해만의 특별한 경험

올해 야행은 그 어느 해보다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채  
워졌다.

· 조선시대 신분체형 : ‘웰컴투조선’  
작년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한 단계 진화했다. 관객들은 양반·상민·포졸 중 하나를 뽑아 역할을 부여받고, 조선시대의 일상을 직접 체험한다. 아이들은 양반 행차에 호위병이 되고, 어른들은 포졸로서 질서를 지키며, 웃음과 물임이 동시에 펼쳐지는 살아있는 역사 교실이 된다.

· 공포체험 : '조선귀담'  
올해 처음 공개되는 '조선귀담'은 김제관 아 동헌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탐관오리의 부패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사연을 바탕으로 꾸며진 이 체험은, 300년의 세월을 건너온 목소리가 관람객을 맞이하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달빛에 비친 기와지붕과 어두운 마당,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인물들이 한밤  
의 김제 관아를 오싹하게 물들일 예정이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25 김제 국가유산 야행(夜行)
- 기간 : 2025. 9. 5.(금) ~ 9. 7.(일), 18:00~22:00
- 장소 : 사적 김제군 관아·향교 및 전통시장 일원
- 내용 : 조선시대 신분체험, 공포체험(관아의 비밀), 전통시장 먹거리 한마당, 지역예술 공연, 무형유산 시연·체험, 야간 경관 연출 등 8개 분야 28개 프로그램
- 총사업비 : 3억 2천만 원  
(국비 1억 800만 원, 도비 4,860만 원, 시비 1억 6,340만 원)
- 문의처 : 김제시청 문화관광과 국가유산팀(063-540-3517)

7년 연속 국가유산청 공모 선정 프로그램  
조선시대신분체험·공포체험·먹거리까지

다.

·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연구 아이디어  
실현 : '말뚝 죽산 막걸리' 누룩체험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의 일  
환으로 추진한 '말뚝거리 누룩체험'은 김  
제 지평선 쌀을 이용한 누룩 발효 체험  
키트를 개발하여 체험객에게 흥미를 불  
러 일으키고, 시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 전통시장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상생무대

야행의 무대는 국가유산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김제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해 ‘100년 먹거리 장터’를 연다.

시장 상인과 청년단체가 직접 준비한 파끈한 전통 음식, 다채로운 간식이 한 자리에 모여 김제의 미각 여행을 완성한다.

또한 플리마켓에서는 시민 셀러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생활 소품을 판매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저녁의 장터가 된다.

□ 빛과 소리, 공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밤

야행 기간 동안 행사장 곳곳에는 14개 소의 야간 경관조명과 포토존이 설치되어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김제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무대, 판소리 명창과 사기장·옹기장 장인들의 무형유산 시연, 국악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퓨전 공연까지 총 8개 분야 28개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 안전과 편의, 세심하게 준비

시는 약 1만 2천 명의 방문객을 예상하며,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 통제, 응급 의료, 기상악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행사 전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사전교육과 비상연락망 구축도 완료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여행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시민 자긍심과 지역경제가 동시에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 새봄에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전국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김제만의 매력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illegible]